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글로벌전략연구본부	성명	김임지	직급	부연구위원/실장	보안교육	O
		극지전략연구실		유지원		연구원	수강여부	O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업무협약)		
관련사업 (예산항목)	「북극권 해양수산 협력기반 강화사업」(일반)							
	- 사업기간: 2026.01.01.~2026.12.31.							
출장기간	2026.05.16.(토) ~ 2026.05.24.(일) (6박 9일)			출장지		덴마크령 그린란드(누크)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 교통수단		
	5.16(토)	김해(15:50)→김포(16:55)→인천		이동 * 5.16 오전 비행편 탑승 시 경유지 숙박이 필요한바, 오후 비행편 탑승 예정		- 김해-김포: KE1822(대한항공)		
		인천(21:50)→헬싱키(05:30)+1				- 김포-인천: 공항버스 이용		
	5.17(일)	헬싱키(07:10)→레이카비크(07:50)				AY042(핀에어)		
		레이카비크(09:45)→누크(11:05)				AY991(핀에어)		
	5.18(월)	그린란드 누크		오전: ① 그린란드 현지 기관 방문 ② 세르메수크 지방자치단체 초청 오찬 겸 면담 오후: 플라씨푸드社 방문		FI113(아이슬란드항공)		
	5.19(화)	그린란드 누크		오전: Future Greenland 2026 참석 오후: Future Greenland 2026 참석		-		
	5.20(수)	그린란드 누크		오전: Future Greenland 2026 참석 오후: AEC 연례 총회 참석		-		
	5.21(목)	그린란드 누크		오전: ① 그린란드 관광청 방문 ② 주 그린란드 캐나다 영사관 면담 오후: AEC 연례 총회 참석		-		
	5.22(금)	누크(20:30)→레이카비크(23:55)		이동		FI116(아이슬란드항공)		
		레이카비크 1박 숙박		숙박(1박)		항공노선 연결사정에 따른 귀국 대기		
5.23(토)	레이카비크(08:40)→헬싱키(15:05)		이동		AY992(핀에어)			
	헬싱키(17:30)→인천(11:20)+1				AY041(핀에어)			

	5.24(일)	인천→김포(14:00)→김해(15:05)	이동 (유지원)	- 인천-김포: 공항버스 이용 - 김포-김해: KE1819(대한항공)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회원사로서 2026 북극경제이사회 연례총회 참석 및 Future Greenland 2026 국제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 북극권 정부, 국제기구, 산업계 관계자들과 교류하며 최근 북극 경제·산업·안보 현안 및 정책 동향 파악 - 그린란드 정부, 북극이사회 관계자, 북극권 지방정부 및 주요 기업과의 면담·현장방문을 통해 북극 경제개발, 관광, 에너지, 항만, 광물 개발 등 분야의 정책 방향과 협력 수요 확인 - 북극권 기업·기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향후 북극 경제협력 및 연구협력 추진을 위한 협력 기반 강화 ○ 주요 성과 - 그린란드 정부 및 산업계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 광물개발, 재생에너지, 항만 인프라 확충 등 그린란드 경제개발 전략과 주요 투자환경 변화 동향 파악 - 누크 항만, 날릭 벤처스, 그린란드 관광청, 폴라씨푸드 등 주요 그린란드 내 공공·민간 기관 방문 및 면담을 통해 항만 확장사업, 투자유치 정책, 수산물 수출, 관광 및 기타 인프라 사업 등 현장 추진현황 확인 - 북극권 국가 및 기업 관계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관광, 물류, 에너지, 광물, 데이터센터 등 북극권 신규 협력 분야 발굴 및 향후 한-북극권 협력 확대 가능성 확인 - 북극 안보환경 변화, 중국·러시아의 북극 활동, 정보전 및 경제안보 이슈 등 최근 북극 지정학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북극 정책·전략 연구를 위한 기반 정보 확보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북극경제이사회 회원사 및 그린란드 내 주요 산업·정책 기관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북극이사회 덴마크 왕국 의장국 기간 내 그린란드와의 향후 협력 우선순위 선정 - 극지해소식지 7월 호 「극지의 창」에 '2026 Future Greenland' 참석 결과 공유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Future Greenland 및 AEC 연례총회 참석차 확보한 북극권 투자·산업·정책 동향 정보와 협력 네트워크 기반으로 향후 정부 정책지원 및 국제 공동연구·공동 세미나 추진에 활용 - 그린란드 최대규모 에너지 기업인 누나그린(Nunagreen) CEO 및 캐나다 데비에(Davie) 조선소 CCO를 북극협력주간 북극항로 관련 세션 및 한-북극 청색경제 협력 관련 세션 연사로 초청함으로써 북극권 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교류 기반 확대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의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업무협의)
업무①	5.18(월), 그린란드 현지 기관(날릭 벤처스, 시쿠키(Sikuki) 항만 회사, EU 집행위 누크 사무소) 방문 및 면담 (북극경제이사회(AEC) 연례 총회 프로그램 일정)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18.(월) 9:00~11:30 / 그린란드 누크 날릭벤처스(Nalik Ventures) 본사 - (주요 참석자) Peter Christiansen 날릭 벤처스 CEO, John Rasmussen 시쿠키 항만 회사 CEO, 사이먼 보이센-뮐러(Simon Bojsen-Møller) EU 집행위 누크 사무소장, 매즈 프레데릭센 북극경제이사회(AEC) 사무총장, Irina Zhilina 북극경제이사회(AEC) 선임 자문관, Aviaaja Karlshøj Knudsen 누나그린(Nunagreen) CEO, Lillian Hvatum Brewster ATCO 그룹 원주민 자문위원회 의장 및 자문위원, Katarina Sætersdal 노르웨이기업연합(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선임 자문관, Lutfi "Louie" Lena 피티캐피탈(Pt Capital) 부사장, Paul Barrett 데비에(Davie) CCO, Antoine Nouvet 주핀란드캐나다대사관 서기관,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등
수행결과	□ 날릭 벤처스 소개 및 그린란드 관광산업 현황 : Peter Christiansen CEO - (날릭 벤처스 역할) 날릭 벤처스는 그린란드 정부가 100% 소유한 투자·경제개발 기관으로, 투자유치, 산업육성, 스타트업 지원, 개발기금 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수행 - (기업 지원제도)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최소 2만 DKK 규모의 소액대출(Micro Loan) 제도 운영. 정착촌 지역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추진 - (투자 원칙) 민간 주도 사업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프로젝트 투자 비중은 최대 49%로 제한. 해외직접투자(FDI) 및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 활성화 추진 - (주요 투자 사례) 금광 개발, 헬리콥터 운송, 숙박시설, 수산가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해 왔으며, 일부 사업은 투자금 회수(Exit)에 성공. 반면 루비 광산 투자 실패 사례 등을 계기로 투자 리스크 관리 강화 추진 - (그린란드 경제·관광산업 현황) 그린란드 경제는 덴마크 재정지원(Block Grant)과 수산물 수출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산업이 전체 수출가치의 약 96%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평가. 누크 인구는 약 2만 명, 그린란드 전체 인구는 약 5만 6천 명 규모이며, 남부 지역에서는 농업과 양 사육 등 녹지 기반 산업활동 전개 - (관광산업 발전 방향) 크루즈 관광객 수 확대보다는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 증대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에 정책적 중점 부여. 단순 관광객 유치보다 지역경제 환원 효과 제고를 주요 목표로 설정 - (관광·정주 인프라 과제) 신규 국제공항 개항에 따라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숙련인력, 주택, 숙박시설 및 보육시설 부족이 주요 성장 제약요인으로 지적. 일부 지역은 항만 규모 한계로 대형 크루즈선의 직접 접안이 어려워 텐더보트를 활용하고 있으며, 화장실·보행시설·교통수단·관광 동선 등 생활밀착형 관광 인프라(Micro Infrastructure) 부족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 - (최근 그린란드 투자 환경 변화) 최근 6개월간 미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기업·투자기관·정부 대표단의 방문이 증가하는 등 그린란드에 대한 국제적 투자 관심 확대 중으로, 미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국 외에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UAE 등이 관광·인프라 분야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호텔 등 관광 인프라 개발 수요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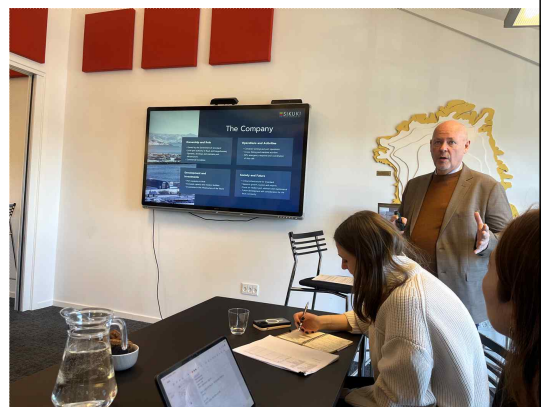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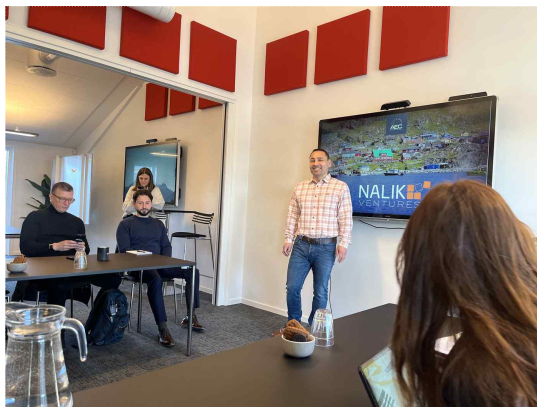
- 미국의 군사·물류 분야 투자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 증가에 대응한 투자심사제도 도입 논의 진행
- (그린란드 광물 및 에너지 개발 관련 동향) 핵심광물 개발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추진 중이나,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인프라 구축 부담이 주요 제약요인
- 광산 개발 과정에서 항만·도로·전력망 등 기반시설 구축과 외국인 노동력 활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현지 가공산업 육성 필요성도 지속 제기 중

□ 시쿠키 항만 회사의 누크(Nuuk) 항만 개발 현황 및 누크 항 확장사업 소개 : John Rasmussen 시쿠키 항만 회사 CEO

- (기관 현황) 시쿠키 항만 회사(Sikuki Nuuk Harbour)는 그린란드 정부가 100% 소유한 누크항 운영기관으로, 누크항 및 칸게를르수악(Kangerlussuaq) 항만 운영·개발 담당
- (재원 구조) 국가예산 지원 없이 항만 이용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상업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며, 항만 이용자가 운영·유지관리 비용을 부담
- (항만의 중요성) 그린란드 전역에는 17개 도시와 56개 정착촌에 걸쳐 약 170개의 항만시설이 운영 중으로, 항공 인프라 확대에도 불구하고 건설자재·대형장비·컨테이너 물동량은 해상운송 의존도가 절대적이며 항만을 그린란드 자치정부 핵심 인프라로 인식하는 중
- (누크항 확장사업 추진 현황) 누크항 기항 크루즈선은 2019년 36척에서 2025년 78척으로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항만 혼잡 해소 및 증가하는 물동량 수요 대응을 위해 총 350m 규모의 신규 부두 건설 추진 중
- 트롤어선 전용 부두(200m)와 군·상업 겸용 부두(150m) 조성 계획으로, 신규 트롤어선 부두 건설을 통해 입항 시 발생하는 컨테이너 육상 운송량을 감소시켜 약 100회 수준의 트럭 운행 감축 기대
- 군·상업 겸용 부두는 덴마크 국방부의 선사용료 선납 방식으로 건설비 일부 조달 예정이며, 유지관리 비용도 일정 기간 지원 예정. 시공업체(KJ Greenland)와 계약 체결 완료하였으며, 2026년 5월 착공, 2028년 11월 준공 목표로 사업 추진 중
- (누크항의 북극항로 허브 항만 부상 가능성) 누크항은 북극권 최북단 연중 무빙항(ice-free port) 중 하나로 평가되며, 북서항로(North-West Passage) 통항 선박 증가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보유
- 특히 최근 북서항로 통항 증가와 함께 승무원 교대, 보급, 서비스 등을 위해 누크항 기항 사례 증가하고 있고, 향후 캐나다 메리강(Mary River) 철광석 프로젝트 등 북극 광산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환적 허브 기능 수행 가능성을 검토 중
- (선박수리 산업) 현재 대형 선박 정비·수리시설은 부족하여 대부분 아이슬란드, 페로제도, 덴마크에서 수리 수행. 이에 따라 부유식 도크 또는 드라이 도크(Dry Dock)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누크 내 해양 관련 기업 및 공공기관 50개 이상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플랫폼인 '누크해양네트워크(Nuuk Maritime Network)'를 중심으로 관련 사업 검토 중
- (항만 전기화) 향후 항만 전기화 사업을 통해 육상전원공급설비(Shore Power)를 구축할 계획이며, 주요 정기 기항 선박에 전력을 공급할 경우 선박 배출가스의 약 80% 감축 가능할 것으로 전망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EU의 對 그린란드 협력 및 북극정책 추진 현황 : Simon Bojsen-Møller EU 집행위 누크 사무소장
 - (교육 중심 협력 추진) EU의 대(對)그린란드 지원은 교육 분야를 핵심 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직업교육·기술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역량강화 사업 확대 추진. 지원금은 별도 EU 사업이 아닌 그린란드 정부의 국가 교육전략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으로 집행
 - (EU 對 그린란드 지원 확대) EU는 현재 연간 약 4,900만 유로 규모의 교육 분야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차기 7개년 예산에서는 기존 2억 2,500만 유로에서 5억 3,000만 유로 수준으로 예산 확대 추진
 - (정책협력 강화) 단순 재정지원뿐 아니라 교육, 통신, 복지, 원격교육 등 북극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 협력 및 경험 공유를 중점 추진. 특히 핀란드의 원격교육 경험 등 북유럽 국가 사례를 활용한 협력 확대 추진
 - (EU 신규 북극전략 수립) EU는 현재 북극전략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21년 전략이 기후변화와 연구 중심이었다면 향후에는 지정학, 안보, 공급망, 지경학 등으로 정책 범위 확대 추진. 다만 환경보호 및 북극 주민 권리 보장은 지속적으로 핵심 가치로 유지 예정
 - (북극정책 추진체계 변화) EU 북극전략 총괄 기능이 국제협력총국(Directorate General International Partnerships; DG INTPA)으로 이관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북극 의제를 실무 차원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수준으로 격상 추진
 - (EU-그린란드 관계) EU의 대그린란드 지원 규모는 그린란드 정부 예산의 약 4% 수준으로 설명되었으며, 수산협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과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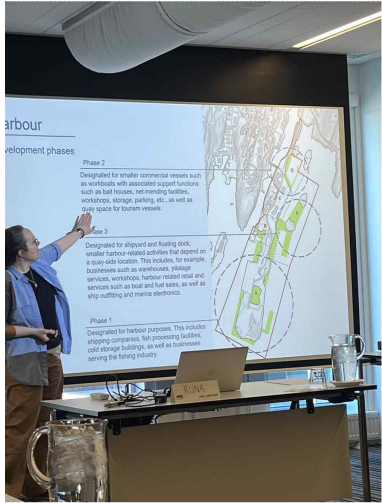
업무②

5.18(월), 세르메수크(Sermersooq) 지방자치단체 초청 오찬 겸 면담 (북극경제이사회(AEC) 연례 총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프로그램 일정)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18.(월) 11:30~13:30 / 그린란드 누크 HHE 호텔 - (주요 참석자) Marie Fleischer 세르메수크 지방행정 부책임자, 매즈 프레데릭센 북극경제이사회(AEC) 사무총장, Irina Zhilina 북극경제이사회(AEC) 선임 자문관, Aviaaja Karlshøj Knudsen 누나그린(Nunagreen) CEO, Lillian Hvatum Brewster ATCO 그룹 원주민 자문위원회 의장 및 자문위원, Katarina Sætersdal 노르웨이기업연합(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선임 자문관, Lutfi "Louie" Lena 피티캐피탈(Pt Capital) 부사장, Paul Barrett 데비에(Davie) CCO, Antoine Nouvet 주핀란드캐나다대사관 서기관,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등
수행결과	□ 세르메수크 지방자치단체 도시개발 및 관광 인프라 정책 설명 * 세르메수크는 그린란드의 5개 지방자치단체 중 하나이며, 행정 중심지 겸 주(州)도는 누크市 - (도시계획 운영체계) 지방정부가 도시계획 및 용도지역 지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개발계획 수립 및 변경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Public Consultation)과 정치적 심의 절차 수행 - (도시경관 보전 정책) 건축물 높이와 배치 등을 관리하여 주거지역 일조권 확보 추진. 해안, 산악 경관 및 바다 조망권을 도시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호텔 등 신규 개발사업 추진 시에도 주요 조망축 보전 원칙 적용 - 그 밖에, 도시 내 녹지축(Green Corridor)과 해안 산책로(Coastal Path) 조성 사업 추진. 보행·자전거·스키 이동이 가능한 여가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역사유적 보호 및 관광객 접근성 제고 추진 - (관광수요 증가) 2024년 누크 국제공항 개항 이후 관광객 수가 급증하였으며, 국제회의 계기 관광과 신선 수산물 항공수출 등 신규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 -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호텔 개발부지 확보가 추진되고 있고 공항 인근을 중심으로 최소 3개 호텔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며, 일부 지역에는 최대 17층 규모 호텔 건설 가능부지 지정 - (항만·산업벨트 조성) 신규 항만과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상업벨트(Commercial Belt) 개발 추진. 기존 항만의 산업시설을 신규 항만으로 이전하고 물류·산업 기능을 집중시키는 도시개발 전략 수립 - (역내 산업 개발 검토) 수력발전 확대와 해저케이블 인프라를 활용한 데이터센터 유치 가능성을 검토 중에 있으며, 데이터센터와 온실, 사무공간 등 복합 활용 모델 구축 방안 논의 중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③	5.18(월), 폴라씨푸드(Polar Seafood)社 방문 (북극경제이사회(AEC) 연례 총회 프로그램 일정)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18.(월) 15:00~16:30 / 그린란드 누크 폴라씨푸드社 본사 - (주요 참석자) Michael Binzer 폴라씨푸드社 회장, 매즈 프레데릭센 북극경제이사회(AEC) 사무총장, Irina Zhilina 북극경제이사회(AEC) 선임 자문관, Aviaaja Karlshøj Knudsen 누나그린(Nunagreen) CEO, Lillian Hvatum Brewster ATCO 그룹 원주민 자문위원회 의장 및 자문위원, Katarina Sætersdal 노르웨이기업연합(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선임 자문관, Lutfi "Louie" Lena 피티캐피탈(Pt Capital) 부사장, Paul Barrett 데이비(Davie) CCO, Antoine Nouvet 주핀란드캐나다대사관 서기관,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등
수행결과	□ 폴라씨푸드社 운영 현황 및 그린란드 수산정책 관련 설명 - (기업 개요) Polar Seafood는 42년 전 소형 어선 1척으로 시작한 가족기업으로, 현재 약 35억 덴마크 크로네(DKK) 규모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약 1,000명의 직원을 고용. 총 37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을 지역 파트너와 공동 출자 형태로 운영 중 - 전체 생산물은 대부분 수출하고 있으며, 최대 수출시장은 중국으로 전체 수출의 약 55% 차지. 주요 생수품은 새우, 그린란드 넙치(Halibut), 대구, 대게 등이며 새우 가공의 상당 부분은 그린란드 현지 또는 트롤선 내 공장에서 수행 - 그린란드 주요 대기업 대부분이 국영기업인 가운데 폴라씨푸드는 사실상 유일한 대형 민간기업으로 평가되며, 기업 활동을 통해 그린란드 전체 세수의 약 3.5%에 해당하는 경제적 가치 창출 - (그린란드 수산자원 관리) 그린란드 수산업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 체계를 적용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및 아이슬란드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 부문 세금을 부과 중 - 최근 새우 쿼터는 약 11만 5천 톤에서 7만 5천 톤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자원 보호를 위해 이를 수용하는 상황 - (인력양성 및 지역사회 기여) 그린란드 최대 민간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체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선원과 사무직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성장과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확산이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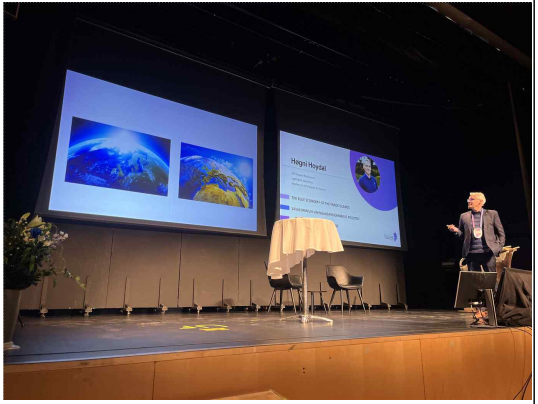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그린란드 경제구조 관련 견해) 현재 그린란드 경제는 공공부문 의존도가 높고 민간 창업 및 기업가정신이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식. 최근 국제공항 개항 이후 관광 산업 분야에서는 새로운 사업모델과 창업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수산업 분야 혁신은 상대적으로 제한적  
업무④	5.19(화), Future Greenland 2026 컨퍼런스 세션(The Arctic Council) 참석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19.(화) 9:40~10:00 / 그린란드 누크 카투악(Katuaq) 문화센터 회의실 - (주요 참석자) Kenneth Høegh 북극이사회 SAO 의장 등
수행결과	□ 덴마크 의장국의 북극이사회 운영 방향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이사회 활동 범위가 일부 제한되었으나,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호 논의를 위한 핵심 정부간 협의체로서 기능 유지. 북극권 국가와 원주민 단체 간 협력 지속 추진 - 덴마크·그린란드·페로제도로 구성된 덴마크 왕국이 2025~2027년 북극이사회 의장국 수임. 그린란드가 정치적 의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고위북극관리(SAO) 의장 및 지속가능발전실 무그룹(SDWG) 의장직도 담당 - △원주민 및 북극사회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및 에너지 전환 △북극해 △기후변화 △생물다양성을 5대 우선과제로 설정하고, 모든 분야에 원주민 참여와 전통지식 활용 원칙 반영 - 북극 지역 경제발전은 지역사회와 원주민 공동체에 실질적 이익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원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확대 노력 경주 중 - 통신·교통·무역·디지털 인프라 등 북극 연결성(Connectivity)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 북극 지역의 경제적 기회 확대와 지역사회 경쟁력 제고 추진 - 지속가능한 수산업, 농업, 책임 있는 자원개발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는 블루바이오경제 발전 추진 - 원격 북극지역의 높은 에너지 비용과 디젤 의존도를 주요 과제로 지적하고, 수력발전 등 청정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 및 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필요성 강조. 그린란드의 수력발전 전환 사례를 대표적 성공사례로 제시 - 향후 예정된 의장국 주요 행사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워크숍, Oceans Connectivity Conference, 제2차 북극청년회의, 북극 생물다양성 국제회의 등이 있으며 동 행사들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해양협력, 청년 참여 및 생물다양성 의제 논의 추진 예정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지정학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관찰자국 원주민단체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2024년 가을부터 모든 워킹그룹의 정기 온라인 회의를 재개하였고, 북극이사회의 협력 기능 유지 및 신규 프로젝트 발굴 추진 중  
업무⑤	5.19(화), Future Greenland 2026 컨퍼런스 세션(The Blue Economy of the Faroe Islands) 참석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19.(화) 11:00~11:20 / 그린란드 누크 카투악(Katuaq) 문화센터 회의실 - (주요 참석자) Høgni Hoydal 전 페로제도 부총리 등
수행결과	□ 페로제도 정부의 해양 중심 경제발전 전략 - 페로제도는 해양 관할구역이 약 27만 4,000km²로 전체 영토의 약 99.5%를 차지하며, 북대서양과 북극을 연결하는 해양 거점 역할 수행 - 연간 약 70만 톤의 수산자원을 생산하고 있으며, 양식업은 전체 수산업 부가가치의 약 50%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 - 수산업·양식업·해조류 산업을 기반으로 블루바이오경제 육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 기반 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개발 중 - 국제규범 기반 수산자원 관리와 북대서양·북극권 국가 간 공동관리 체계를 유지하며 북극이사회를 주요 협력 플랫폼으로 활용 □ 경제발전 성과 - 덴마크 보조금 의존도를 GDP의 25%에서 1.8% 수준까지 축소하였으며, 향후 완전한 재정 자립 추진 - 2030년 100% 재생에너지 전환을 목표로 조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 - 해저터널과 국제항공노선 확충을 통해 교통·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 □ 투자 및 자원주권 정책 현황 - 수산자원 등 핵심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 통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외국인 투자 유치 병행 - 수산업 쿼터, 농지·주택 소유는 제한하는 반면 대부분 산업 분야는 투자 개방 유지 - 자유무역 확대와 WTO 가입을 추진하며 국제시장 접근성 강화 □ 북극 및 북대서양권 협력 - 러시아와의 수산자원 공동관리 협정을 유지하며 해양생태계와 수산업 안정성 확보 추진 - 그린란드와 함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자원주권 강화, 국제시장 접근성 확대를 공통 과제로 추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⑥	5.19(화), Future Greenland 2026 컨퍼런스 세션(Political Round table) 참석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19.(화) 15:30~16:30 / 그린란드 누크 카투악(Katuaq) 문화센터 회의실 - (주요 참석자) Aqqaluaq B. Egede 이누이트 아타카티기트(Inuit Ataqatigiit) 정당 소속 정치인, Jens-Frederik Nielsen 그린란드 자치정부 총리, Aleqa Hammond 전 그린란드 총리, Bentiaaraq Ottosen 전 그린란드 자치정부 사회노동내무부 장관 등
수행결과	□ Jens-Frederik Nielsen 총리 - 광물개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은 단순 자본 투입이 아닌 지역사회와 장기적 발전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추진 필요. 투자 유치 과정에서 안정적 제도와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구축 중요 - 광물, 에너지, 항만 인프라뿐 아니라 수자원 분야도 유망 투자 분야로 평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숙련 인력 확보가 핵심 과제이며, 이를 위한 청년 인재 양성과 교육투자 확대 필요 - 그린란드는 혹독한 자연환경과 독특한 사회문화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외부 투자자와 기업은 지역 가치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필요 □ Aqqaluaq B. Egede 정치인 - 그린란드는 식민지 경험과 외부 문화 유입 속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하며 발전해 온 사회로 평가. 이러한 적응력과 회복탄력성이 그린란드 사회의 핵심 경쟁력으로 제시 - 다언어 환경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바탕으로 외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으며, 국제사회와의 협력 과정에서도 이러한 역량 활용 가능 □ Aleqa Hammond 전 총리 - 북극해 해빙과 북극항로 이용 확대에 따라 관광, 통신, 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경제적 기회 창출 가능성 확대 - 북극 개발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 유치 중요 - 최근 해외에서 그린란드로 유입되는 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경제발전 과정에서 인구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수천 년간 형성된 고유의 언어와 문화, 사회적 가치가 그린란드 발전의 핵심 자산이며, 투자 및 개발 과정에서도 이를 존중할 필요 □ Bentiaaraq Ottosen 전 장관 - 투자 및 개발사업은 안보와 국가의 기본적 가치를 고려하는 가운데, 그린란드 주민의 이익과 의사결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정을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 - 에너지, 광물, 항만 인프라, 관광, 무역, 데이터센터 및 통신 인프라 등을 주요 성장 분야로 제시. 기술혁신과 디지털 인프라 확충을 경제발전의 핵심 요소로 평가 - 최근 그린란드 내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사냥문화, 환경보호, 원주민 권리 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주민 기반 가치체계가 그린란드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평가 
업무⑦	5.19(화), Future Greenland 2026 컨퍼런스 세션(What we need to understand about the US) 참석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18.(월) 16:45~17:15 / 그린란드 누크 카투악(Katuaq) 문화센터 회의실 - (주요 참석자) Rufus Gifford 전 주덴마크미국대사, Masaana Egede 그린란드 신문사 Sermitsiaq AG CEO 겸 편집장 등
수행결과	□ 미국-그린란드 관계 및 최근 정치환경 평가 - 최근 1년 반 동안 미국의 그린란드 관련 발언과 정책으로 인해 그린란드 사회 내 불확실성과 불안감이 확대. 투자, 고용, 미래 경제전망 등에 대한 우려 증가 - 미국 내 정치적 분열은 경제적 불안, 인플레이션, 생활비 상승, 이민 문제 및 공공 신뢰(Public Trust) 약화와 밀접하게 연계. 정부에 대한 신뢰 저하가 정치적 극단화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 -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는 전통적 보수주의보다는 유럽 극우 민족주의 정당들과 유사한 성격을 지닌 정치운동으로 평가 반이민초국가주의(Hyper-nationalism)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의 對 그린란드 정책 관련 시각 - 북극에서 러시아의 군사적·전략적 활동 확대에 따라 미국 내 북극 안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린란드는 북극 안보 및 북대서양 방위체계의 핵심 지역으로 인식 - 미국과 그린란드 관계는 영토 확보 논의보다 관광, 투자, 산업협력 확대를 중심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대그린란드 접근도 투자와 경제협력 중심으로 전환 필요 - 미국-덴마크-그린란드 간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의 갈등 상황은 장기적으로 해소 가능하다는 전망 제시 □ 향후 미국-그린란드 협력 가능 분야 - 미국 동부와 그린란드 간 지리적 접근성이 높다는 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 협력 확대 가능성 제시. 미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광물·에너지 분야 외에도 관광, 호텔 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미국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 제기. 최근 그린란드에 대한 국제적 관심 증가를 투자유치 기회로 활용 가능
- 최근 미국의 대그린란드 정책과 발언으로 양측 간 신뢰가 일부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기업 차원의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제시



업무⑧	5.20(수), Future Greenland 2026 컨퍼런스 세션(China in the Arctic) 참석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20.(수) 13:20~13:40 / 그린란드 누크 카투악(Katuaq) 문화센터 회의실 - (주요 참석자) Camilla Tenna Nørup Sørensen 덴마크 국방대학교 부교수, Alexander Dalziel 캐나다 맥도널드-로리에 연구소(MacDonald Laurier Institute) 선임연구원 등
수행결과	□ Camilla Tenna Nørup Sørensen 부교수 - 중국은 과거 광물개발, 인프라, 통신망, 연구기지 등을 중심으로 그린란드 내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였으나 미국-덴마크의 견제와 현지 반발로 주요 사업이 중단. 현재는 적극적 진출보다 상황을 관망하는 접근 유지 - 중국은 북극을 자원 확보나 북극항로 활용뿐 아니라 미중 전략경쟁에서 기술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전략공간으로 인식. 극한환경에서 기술과 장비를 시험검증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 추진 - 중국은 북극 연구활동을 통해 극지 운용기술, 통신기술, 무인체계 등 첨단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과학연구는 상업·군사 분야에 모두 활용 가능한 이중용도(Dual-use) 성격을 보임 - 중국은 현재 북극 거버넌스 체계가 장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으며, 비북극국의 참여 확대와 영향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추진 - 최근 수년간 중국의 대그린란드 외교·경제 활동은 다소 축소되었으나, 향후 투자 및 자원개발 기회 확대 시 재진출 가능성 존재 □ Alexander Dalziel 선임연구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대중국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북극 지역에서도 양국 간 경제·에너지 협력 확대 - 중국은 서방국가의 견제로 북극 진출 공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러시아 북극을 주요 활동 거점으로 활용. 러시아 북극은 중국의 북극 전략 수행에 핵심 기반으로 기능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중국과 러시아는 북극에서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쇄빙선 개발과 원자력 추진선박 등 일부 분야에서는 잠재적 경쟁 관계도 병존
- 중국은 북극항로를 상업항로뿐 아니라 말라카 해협 등 기존 해상교통로의 안보 리스크를 보완하는 전략적 대체 운송로로 인식
- 뿐만 아니라 중국은 러시아 LNG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북극권 광물·에너지 개발사업에도 지속적인 관심 유지
- 그린란드 수산물의 주요 수출시장 중 하나가 바로 중국으로,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그린란드 간 경제·무역 분야 교류는 지속



업무⑨	5.20(수), Future Greenland 2026 컨퍼런스 세션(The Ambassadors' Lounge) 참석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20.(수) 14:00~14:35 / 그린란드 누크 카투악(Katuaq) 문화센터 회의실 - (주요 참석자) Christophe Parisot 주덴마크 프랑스대사, Carolyn Bennett 주덴마크 캐나다 대사, Kenneth Howery 주덴마크 미국대사, Victoria Billing 주덴마크 영국대사 등
수행결과	□ Christophe Parisot 프랑스 대사 - 주권 강화 대외 의존도 축소, 상호 호혜성(Reciprocity), 핵심 가치 공유를 대그린란드 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제시 - 광물자원 개발, 자원탐사, 수력발전 기반 청정에너지, Power-to-X 산업, 지속가능 관광, 문화과학 연구 협력 및 연결성 강화 분야로의 프-그간 협력 추진 노력 - 그린란드 사업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광물개발 등 대규모 사업은 공공민간 공동투자 체계 구축 필요 - 그린란드와의 실질적 협력을 위해서는 현지 상주 인력과 지속적인 현장 활동이 중요하며, 프랑스의 외교·안보·경제 분야 현장 참여 확대 추진 - 프랑스와 그린란드 간 협력은 장기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과학·안보 분야 협력 심화 예상 □ Kenneth Howery 미국 대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그린란드는 북극 안보와 서방 방위체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되며, 미국은 NATO 및 덴마크와의 안보 협력 지속 추진
 - 미국-그린란드-덴마크 3자 실무협의체를 신설하여 국방·경제 협력 논의 확대 중
 - 핵심광물, 북극항로, 수산물 교역, 관광산업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 미국 관광객 증가와 직항노선 재개를 계기로 관광협력 확대 추진
 - 누크 주재 미국 영사관 확대 운영을 통해 비자 서비스, 기업 교류, 학생 및 연구자 교류 확대 추진
 - 그린란드의 광대한 국토와 높은 물류비용이 투자 유치의 주요 제약요인으로 평가되며, 공공-민간 공동 금융(Blended Finance) 활용 필요성 제기
 - 관광, 에너지, 데이터센터, 교육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그린란드 협력 확대 가능성 다대
 - Victoria Billing 영국 대사
 - 영국은 북극 및 북대서양 안보를 영국-그린란드 간 핵심 정책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극 해역 군사활동과 방위협력 확대 추진
 - 영국 고등연구혁신국(Advanced Research & Invention Agency, ARIA)가 주도하는 8천만 파운드 규모의 북극 기후·과학 프로그램을 통해 그린란드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협력 추진 중
 - 그린란드 수산물의 약 20%가 영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을 위한 무역 협상이 지속되면서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 경주 중
 - 영국 기업들이 그린란드 광업 분야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광물자원 분야 투자 확대 검토
 - 주택 공급 부족과 숙련인력 부족이 그린란드로의 투자 유치 및 기업 활동 확대의 핵심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
 - Carolyn Bennett 캐나다 대사
 - 북극 협력은 정부 간 관계보다 지역사회와 주민 간 관계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하는바, 캐나다-그린란드 간 협력은 신뢰와 상호 존중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
 - 그린란드 경제개발 과정에서 원주민 공동체가 실질적 경제적 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 구축이 필요하며, 아울러 북극지역 개발 과정에서 지역 외부로 경제적 이익이 유출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 환원 확대 추진 필요
 - 북극권 국가 간 상품서비스 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원주민 생산물, 전통식품, 문화상품의 교역 활성화가 이행되어야 할 것
 - 누크 영사관 개설을 통해 북극권 주민 간 교류, 교육·보건·경제 협력 확대 추진 중
- * 캐나다는 2024년 「Canada's Arctic Foreign Policy」 전략 내용에 누크 영사관 설치 계획을 포함했고, 2026년 2월 6일 누크에 캐나다 영사관을 공식 개설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⑩	5.20(수), Future Greenland 2026 컨퍼런스 세션(Trade Barriers across the Inuit Homeland - How do we unlock the opportunities?) 참석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20.(수) 15:00~16:30 / 그린란드 누크 Hans Egede 호텔 10번 컨퍼런스룸 - (주요 참석자) 매즈 프레데릭센 북극경제이사회(AEC) 사무총장, Aviaaja Karlshøj Knudsen 누나그린(Nunagreen) CEO, Lutfi "Louie" Lena 피티캐피탈(Pt Capital) 부사장, Pita Aatami Makivik社 회장, Jacob Nitter Sørensen 에어그린란드(Air Greenland) CEO 등
수행결과	□ Pita Aatami 회장 - 그린란드 및 캐나다 누나빅(Nunavik), 누나부트(Nunavut), 미국 알래스카 등 각 지역이 보유한 항공, 해운, 수산업, 전통식품 생산 역량을 체계적으로 정리·공유할 필요성을 제기 - 각 북극 지역이 강점을 보유한 수산업, 의류 생산, 전통식품 가공 등의 산업 정보를 상호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필요성을 강조 - 상품뿐 아니라 북극권이 축적해 온 수산업 운영 경험, 주택 건설, 인프라 구축, 항공 운영 등 실무 노하우 역시 중요한 교역 자산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평가 □ Jacob Nitter Sørensen CEO - 북극권 국가 및 지역 간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MOU 체결과 같은 선언적 협력보다 실제 사업 발굴과 후속 실행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평가 - 그린란드와 캐나다 북부 간 항공 연결성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만큼, 여객뿐 아니라 화물 운송 확대를 통한 교역 활성화 가능성을 제시 - 통관 절차와 행정규제가 북극권 교류 확대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 □ Mads Qvist Frederiksen AEC 사무총장 - 그린란드를 비롯한 북극권 지역은 여전히 덴마크 코펜하겐 등 남부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북극권 내부(North-to-North) 교역 확대 필요성을 강조 - 그린란드 기업들이 단순히 '그린란드 기업'이 아니라 북극권 전역에서 활용 가능한 역량을 보유한 '북극 비즈니스'로 인식할 필요성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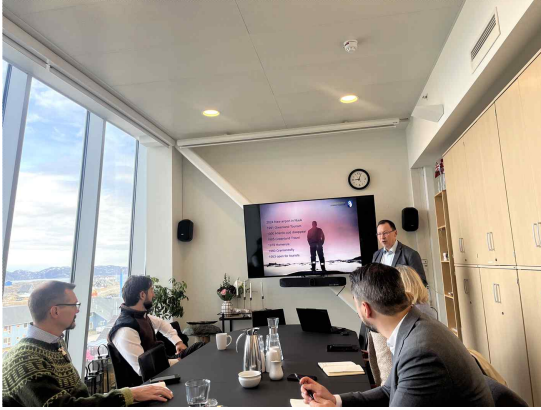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에너지, 식량, 핵심광물, 금융, 공급망 분야에서 북극권 내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회복력과 전략적 자율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 - 원주민 전통식품의 국가 간 이동 과정에서 물개고기 반입량이 1인당 4.5kg으로 제한되는 등 현실과 괴리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며, 북극권 교역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
	 
업무⑩	5.20(수), Future Greenland 2026 컨퍼런스 세션(The value of relationships - 40 years of EU-Greenland partnership) 참석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20.(수) 17:00~17:25 / 그린란드 누크 카투악(Katuaq) 문화센터 회의실 - (주요 참석자) Jozef Sikela EU 국제파트너십 집행위원, Christian Keldsen 그린란드 기업협회(Greenland Business Association) CEO 등
수행결과	□ Jozef Sikela 집행위원 - EU는 2028~2034년의 기간 동안 그린란드 지원 규모를 기존 2억 2,500만 유로에서 5억 3,000만 유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별도의 추가 지원 패키지도 준비 중 - 기후변화 대응, 안보 강화, 경제 다변화 및 회복력 제고를 EU-그린란드 간 핵심 협력 분야로 제시하며, 향후 EU 북극정책 개정 과정에서도 그린란드와의 협력을 핵심 축으로 반영할 계획을 설명 - 그린란드 장기발전을 위한 핵심 분야로 디지털 연결성, 전력 인프라, 교육, 통신망 구축 등을 제시하고, EU측의 해저케이블 등 전략 인프라 사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 - EU는 보조금, 보증, 혼합금융(Blended Finance) 등을 활용하여 민간투자 리스크를 완화하고, 그린란드 내 핵심광물 및 희토류 개발사업 투자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 - 그린란드 정부가 제시한 전반적인 투자 프로젝트 제안의 수준과 준비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며, 향후 EU-그린란드 협력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다변화를 지원할 의향을 표명 □ Christian Keldsen CEO - 현재 그린란드 경제가 수산업과 덴마크 블록그랜트 즉, 포괄보조금(Block Grant)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 중심의 경제 다변화 추진 필요성을 제기 * 포괄보조(block grant) 방식은 사회서비스, 지역개발, 고용 및 훈련 등의 영역에서 각 지역의 욕구에 부응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방정부에게 재량권을 이양하는 중앙정부의 재정 운영 방식 - 그린란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이 개발사업과 투자 프로젝트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 - EU의 투자 및 지원 프로그램이 그린란드 기업의 성장과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며, 민간부문 참여 확대 필요성을 언급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⑫	5.21(목), 그린란드 자치정부 기업·광물자원·사법·성평등부(Ministry of Business, Mineral Resources, Justice and Gender Equality) 산하 그린란드 관광청(Tourism in Greenland) 방문 (북극경제이사회(AEC) 연례 총회 프로그램 일정)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21.(목) 9:00~10:00 / 그린란드 누크 내 기업·광물자원·사법·성평등부 건물 회의실 - (주요 참석자) Salik Hard 그린란드 기업·광물자원·사법·성평등부 선임 자문관, 매즈 프레데릭센 북극경제이사회(AEC) 사무총장, Irina Zhilina 북극경제이사회(AEC) 선임 자문관, Aviaaja Karlshøj Knudsen 누나그린(Nunagreen) CEO, Lillian Hvatum Brewster ATCO 그룹 원주민 자문위원회 의장 및 자문위원, Katarina Sætersdal 노르웨이기업연합(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선임 자문관, Lutfi "Louie" Lena 피티캐피탈(Pt Capital) 부사장, Paul Barrett 데이비에(Davie) CCO, Antoine Nouvet 주핀란드캐나다대사관 서기관,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등
수행결과	□ 그린란드 관광산업 발전 현황 및 정책 방향 - 관광산업은 그린란드의 대표적인 경제 다변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육상 관광객은 약 8만 5천 명 규모. 관광산업은 GDP의 약 5%를 차지하고 약 2,000명의 고용을 창출 - 누크 신공항 개항 이후 북미·유럽 직항노선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추가 공항 개항을 통해 관광객 유입 및 지역 분산 효과 기대 □ 관광 규제체계 및 지속가능 관광정책 - 2025년 관광법 시행에 따라 2027년부터 관광 체험상품 운영 시 면허 취득을 의무화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주도 관광과 관광사업자의 2/3 이상 그린란드 소유 원칙 유지 - 지방정부에 관광구역 지정 권한을 부여하여 자연환경 보호와 관광객 관리 강화 추진 □ 크루즈 관광 현황 및 관리방향 -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관광객이 급증하였으며, 일부 지역은 연간 관광객 증가율이 75%에 달하는 등 지역사회 부담 확대 - 3,500명 규모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 증가하고 있으나, 500명 이하 탐험크루즈 중심의 지속가능 관광을 지향 - 총톤수 3만 GT 이상 선박에 추가 환경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격지역 운항 안전관리도 강화 추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관광산업 주요 과제 및 발전 방향 - 관광 수요의 계절성 숙박시설 부족, 인력난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며, 외국인 투자와 전문인력 양성 확대 노력 중 - 약 70개 세부 과제를 포함한 10개년 관광발전계획을 추진 중이며, 관광객 수 확대보다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관광객(Better Tourists)' 유치에 중점 - 관광객을 공항도시 외 정착촌으로 분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관광정책 추진
	 
업무⑬	5.21(목), 주그린란드 캐나다 영사관 면담 (북극경제이사회(AEC) 연례 총회 프로그램 일정)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21.(목) 10:30~11:30 / 그린란드 누크 카투악(Katuaq) 문화센터 회의실 - (주요 참석자) Carolyn Bennett 주덴마크 캐나다대사, Julie Croteau 주그린란드캐나다영사관 영사, 매즈 프레데릭센 북극경제이사회(AEC) 사무총장, Irina Zhilina 북극경제이사회(AEC) 선임 자문관, Aviaaja Karlshøj Knudsen 누나그린(Nunagreen) CEO, Lillian Hvatum Brewster ATCO 그룹 원주민 자문위원회 의장 및 자문위원, Katarina Sætersdal 노르웨이기업연합(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선임 자문관, Lutfi "Louie" Lena 피티캐피탈(Pt Capital) 부사장, Paul Barrett 데이비(Davie) CCO, Antoine Nouvet 주핀란드캐나다대사관 서기관,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등
수행결과	□ Carolyn Bennett 대사 - 캐나다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누크 영사관을 운영한 바 있으며, 2026년 영사관 재설치를 통해 그린란드와의 협력관계를 본격 확대. 그린란드 역시 2028년 오타와 영사관 개설 계획을 추진 중 - 그린란드의 경제개발과 지역발전은 외부 주도가 아닌 지역사회와 원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지시(Telling)'가 아닌 '질문(Asking)' 중심의 협력방식 필요성을 강조 - 북극지역 개발과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현지 주민이 보유한 전통지식과 경험을 적극 반영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다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 가능 -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주민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Bottom-up) 접근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와 사업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 □ Julie Croteau 영사 - 캐나다는 2026년 누크 영사관을 개설하였으며, 2022년 한스섬(Hans Island) 경계협정 체결과 북극정책 강화가 주요 계기로 작용 - 2024년 북극외교정책(Canada's Arctic Foreign Policy)을 수립하면서 북극대사직 복원, 누크 영사관 개설, 앵커리지 영사관 재개설 등을 추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캐나다와 그린란드는 핵심광물, 에너지, 북극물류, 해운, 항공, 관광, 식량안보 분야 협력 확대를 추진 중이며, 토론토에서 개최된 캐나다 광물탐사개발협회(PDAC) 국제 컨퍼런스 계기 양국간 핵심광물 에너지 협력 의향서 체결 - 그린란드 국영 해운사인 Royal Arctic Line과 캐나다 해운기업 간 물류협력 논의가 진행 중이며, 북극 물류·항공 연결성 강화 및 공급망 협력 확대 가능성을 제시
업무⑭	5.21(목), AEC 연례 총회 참석 (북극경제이사회(AEC) 연례 총회 프로그램 일정)
수행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026.05.21.(목) 16:00~18:00 / 그린란드 누크 내 그린란드기업협회 건물 회의실 - (주요 참석자) 매즈 프레데릭센 북극경제이사회(AEC) 사무총장, Irina Zhilina 북극경제이사회(AEC) 선임 자문관, Aviaaja Karlshøj Knudsen 누나그린(Nunagreen) CEO, Lillian Hvatum Brewster ATCO 그룹 원주민 자문위원회 의장 및 자문위원, Christian Keldsen 그린란드기업협회 CEO, Katarina Sætersdal 노르웨이기업연합(Confederation of Norwegian Enterprise) 선임 자문관, Lutfi "Louie" Lena 피티캐피탈(Pt Capital) 부사장, Paul Barrett 데비에(Davie) CCO, Antoine Nouvet 주핀란드캐나다대사관 서기관, 김엄지 KMI 극지전략연구실장, 유지원 KMI 극지전략연구실 연구원 등
수행결과	□ AEC 활동 현황 발표 및 총회 진행 : Mads Qvist Frederiksen 사무총장 - (AEC 활동 현황) AEC는 지난 1년간 15개국 이상 정책결정자 및 산업계와 교류하고, 100회 이상의 국제행사에 참여했으며, 북극 인프라 보고서 발간, 포항시 및 Arctic Mayors' Forum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했다고 소개 - 최근 북극 관련 핵심 이슈로 △그린란드에 대한 국제적 관심 확대, △핵심광물 확보 경쟁, △관광객 증가, △해저케이블 및 우주 인프라 등을 제시. 최근에는 캐나다의 북유럽 협력 강화, 방위안보 투자 확대, 북극 해운 관심 증가가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 북극 경제는 수산물, 핵심광물, 에너지 산업이 핵심 성장동력이며, 향후 해운과 공급망 변화의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특히 북극권 경제안보와 지역사회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단순 군사안보보다 지역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강조 - 북극 개발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교통·항만 등 인프라 부족, △투자 및 금융조달 어려움, △숙련인력 부족을 제시. 특히 그린란드 인구가 현재 약 5만 6천 명에서 2050년 약 4만 6천 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인력 확보 측면의 주요 과제로 언급 - AEC는 향후 북극 해운, AI 활용사례 발굴, 에너지 협력 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며, 북극 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자와 산업 기회를 국제사회에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

- (총회 안건 투표 진행) AEC 운영 규칙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투표 진행 완료



* 주요 업무 내용을 10개 내외로 작성

* 업무별 수행 결과는 각 700자 이내로 작성(관련 사진, 도표 필요시 추가)

* 보고서 총 분량은 10페이지 내외로 작성(필요시 조정)